

관동팔경의 명승 형상화와 정착시기에 관한 연구

손희경* · 노재현**

*우석대학교 대학원 조경토목공학과 ·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조선시대의 유람(遊覽)은 사대부들이 즐겨하는 문화행위 중 하나로 그들에게 있어 유람은 단순히 경물을 완상(玩賞)하는 양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산수유람은 복잡하고 번다한 일상에서 벗어난 탈속(脫俗)의 자유를 느끼고자하는 열망의 표출이었다.

팔경문화는 중국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태동하여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 전통 경관의 원형을 이끄는 문화현상으로 자리하였다(노재현 2009). 고려 중엽 때 소상팔경으로 대표되는 팔경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한국의 경관 문화현상으로 정착됨에 따라 16~17세기 초반 문인들이 중심으로 관동지방에서도 팔경이 형성되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정형화과정을 거쳐 지명도(指名度) 높은 명승으로 고착(固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강원도 관동의 명승지는 많은 시인묵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기행시와 가사, 유람기 등의 기록들과 또한 그림의 제재(題材)로도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현상 속에서 관동의 뛰어난 경치가 알려지면서 '유람의 명소' 또는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금강산과 함께 관동지역 유람을 일생의 소원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렇듯 관동의 여러 경승지는 팔경문화와 유람문화의 현상이 시너지작용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8개의 명소로서 집경(集景)이 구체화되었을 것이다. 산수유람기와 조선후기 유행하였던 기행사경도(紀行寫景圖)의 주제가 주로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한 강원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금강산과 관동팔경은 문인들의 문학작품 속에도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진경시대의 화가인 겸재 정선을 필두로 당대 대표적 화가들 대부분이 풍경의 진면목을 그림으로 남기고 있음에서도 증명된다.

본 연구는 관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거나 시문이나 화면에 모은 집경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현재의 관동팔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시기에 현재 "여덟(8)의 경"으로 정착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관동팔경의 연원 및 형상화과정의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손희경 등, 2016)할 뿐 아니라, 국내 팔경의 집경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문(詩文)과 도상자료(圖像資料)는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중·후기부터 근대까지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의 고성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현재 경상북도에 포함된 일부 옛 강원도 지역을 아우르는 관동 명승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제재(題材)

본 연구의 제재는 관동팔경과 각 경물을 대상으로 읊은 옛 시문 및 지리지 그리고 이와 관련 문헌자료와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畫), 민화(民話), 승람도(勝覽圖) 그리고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제공하는 고지도(古地圖) 등의 도상(圖像)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1) 시문자료 분석

문헌검색 도구는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에 탑재(搭載)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버(Naver)', '다음(Daum)' 그리고 '구글(Google)'을 검색엔진으로,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비롯하여 '관동팔영(關東八詠)', '관동명승(關東名勝)', '관동승경(關東勝景)' 그리고 '관동명구(關東名區)'를 키워드(Key words)로 관동지역의 명승에 대한 시문(詩文) 상에 등장하는 집경(集景) 자료를 정리하였다. 시문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한국고전번역원DB에 탑재된 자료 및 기존 연구논문 중 관동팔경을 대상으로 읊은 집경시 및 유람기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임영지(臨瀛誌)』, 『강원도지(江原道誌)』 등의 지리지(地理志) 등을 대상으로 제화시(題話詩) 및 유람의 등장 경물 및 장소, 묘사내용, 등장순서, 유형화된 경색(景色) 표현 등을 살폈다.

2) 도상자료 분석

도상자료 중 고지도는 군현도와 전국도를 망라하여 조사하였으며 전국도는 강원도 옛 고지도상에 관동팔경의 표시 유무를 살펴보았다. 시문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그림에서 제화도(題畫圖)에 묘사된 경물을 관동팔경과 그 밖의 명승으로 구분한 뒤 시대순으로 재기입(List up)하여 배열함으로써 관동팔경의 형성시기를 유추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실경산수화 중 관동명승도를 중심으로 관동팔경의 집경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시대 순으로 제시된 화첩상의 대상 경물을 목록화하고, 관동팔경의 출현율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명승 집경의 대표적 사례이자 선조들의 향유경관 문화현상이었던 관동팔경의 형성과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관동팔경을 대상으로 옛 문헌과 옛 지도, 옛 그림 등을 통해서 승경 집경의 과정 및 그 형상화 시기를 탐색함으로써 관동팔경의 형상과 정착과정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에서부터 현대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축적, 확장되어 온 관동팔경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관동 해안가의 대표적 명승으로 정착되었다. 18세기에 관동명승 집경은 특히, 18세기 시인묵객들의 금강산 유람의 붐과 병행한 일종의 문화현상이었다.

2. 이황(李滉)의 「답홍응길(答洪應吉)」에서 “경포는 강릉동북에 있고 둘레가 20리, 물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깊지도 얕지도 않으며 사면이 중앙과 같고 관동팔경의 하나다.”라는 내용을 통해 ‘關東八景’이란 관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때, 관동팔경은 이미 16세기 이전 당시인들의 인식 속에 형상화된 것으로 추론된다.

3. 본 연구에서 확인된 최초의 관동팔경 집경은 신즙(申楫, 1580~1639)의 「무산일단운체 영관동팔경(巫山一段雲體 詠關東八景)」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동팔경이라는 용어는 문학 분야에서는 최소한 16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현재의 ‘팔경’ 세트의 관동팔경으로 정착된 시기는 적어도 17세기 초반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1580년 작인 「관동별곡」 이후 관동 승경은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유람을

촉진시킨 기폭제가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4. 회화 분야에서 관동팔경이 8개 화폭에 그려진 것은 허필(許珪, 1709~1761) 작인 『關東八景圖屏』에서 확인된다. 관동명승도에 나타난 관동 명승 경물의 출현빈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시문에서의 집경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화제출현률 순위는 시문에서 보다 시각적 결속력과 응집성이 더욱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정한 관념체계상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제작된 회화 작품이 갖는 도상(圖像, icon)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5. 조선 후기에서 근대에 들어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관동팔경팔폭병풍》이란 이름의 민화(民畵)들은 한결같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필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관동팔경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작되고 있음은 관동팔경의 정착을 넘어 관동팔경의 문화현상이 보편적 수용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근거이자 당대 명승탐방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보여준다.

6. 관동팔경은 고려시대부터 별개의 경물로 명성을 얻다가 17세기 후반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탐승과 향유를 통해 오직 여덟 개의 명소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명승임을 알게 된다. 즉 관동팔경은 15세기 전반 이전부터 인식·향유된 것으로 보이고, 17세기 정착 과도기 과정을 거쳐 18세기에 들어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매체별로 전승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이며 관습적으로 관동팔경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이보라(2005) 조선시대 關東八景圖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이상균(2013)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노재현(2009) 소상팔경. 전통경관 텍스트로서의 의미와 결속구조. 한국조경학회지 37(1): 100-119.
4. 손희경, 노재현(2016) 옛 그림과 시문으로 조명한 關東八景 등 關東名勝의 확장과 형상화 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6(1): 32-37.
5. 이보라(2007) 관동지역의 八景化 시기 연구. 忠北史學 18: 431-453.
6. 이종환 저 이익성 옮김(2006). 택리지. 을유문화사.
7. <http://db.itkc.or.kr> 한국고전번역원.
8. <http://e-kyujanggak.snu.ac.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 <http://taylor.tistory.com/278>